

방재업무의 변화를 요구한다.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협회가 안전점검이란 업무를 수행한지 17년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NFPA, 일본의 소방연구소 등 세계적 방재기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금껏 화재예방활동을 통해서 국가 및 손해보험업계에 기여한 바 크다.

협회 설립당시 여건은 국민소득 395불, 손해보험료 354억원 화재보험료 58억원이었으며 '88년도에는 국민소득 4,040불로 10배, 손해보험료 18,985억원으로 53배, 화재보험료 1,045억원으로 18배가 증가하여 경제발전의 변화를 실감케하고 있으며 보험업이 국민소득 보다 더욱 빨리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분야도 함께 성장하여 전기, 가스, 소방에 대한 전문기관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안전점검업무는 대상물건의 증가 만큼 내용면에서 변화되지 못하였다. 우리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여 온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화보험 개정의 어려움으로 돌릴 수도 있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인 문제로서 풀해체를 대비한 축소지향적인 경영이었다. 협회가 '75년 당시 손해보험공동인수사무소를 흡수 통합할 때 언젠가는 풀이 해체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는 풀해체의 반대 내지는 연기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상태로 14년이 흘러왔으며 풀이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방재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동안 안전점검업무는 그 속에서 안주하며 전혀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였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제반 주위여건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풀을 통한 재정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 뚜렷한 가치와 명분 있는 업무를 확대 개발하여 협회 존립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협회가 설립되었지만 타인이 가치를 평가하는 민주화시대에 있어서는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유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함은 물론 손해보험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의 업무를 분석해 보면, 첫째,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두번째, 개발된 상품을 판매하고 셋째, 판매상품의 보유를 위해 underwriting을 하고 넷째,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을 하며 다섯째, 보험료의 자금운동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을 우리의 주업무로 해야 할 것이다. 전체 손해보험 "Risk" 관리를 사업목표로 하고 컴퓨터 중심의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입력업무는 안전점검을 포함하여 손해보험과 관련한 자동차, 풍수재, 건설, 기계, 선박, 배상책임 등의 Risk를 조사하는 업무로 하고 출력으로는 활용업무로서 손해보험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와 통계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보험의 개정과 손해보험업계의 도움이 요청된다. 또한 풍부한 자료의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축적된 자료와 Software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화재예방이라는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 손해보험 전체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산업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